

장흥군, 전국 최초 다리 위 '공원형 야시장' 들어선다

행자부 야시장 공모사업 선정 국비 5억원 확보...탐진강 예양교에 조성



전국에서 최초로 다리 위 '공원형 야시장'이 장흥군에 들어설 전망이다.

장흥군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야시장 및 골목경제 공모'에 선정돼 '장흥 토요야시장(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장흥군은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야시장 조성에 나선다.

특색 있는 야시장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일반 야

시장과 달리, 탐진강 다리 위에 공원형 야시장을 꾸민다는 사실이다.

장흥읍 예양교에 조성되는 토요 야시장은 전국 최초 다리 위 야시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야시장 자리는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여유로운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답고 정취 있는 소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예양교에서 바로 올라다 보이는 장흥교에는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해 탐진강을 중심으로 장흥의 아름다운 야경을 담아낼 계획이다.

예양교 공원형 야시장은 2018년 개장할 계획이다.

장흥은 지금까지 편백숲 우드랜드와 토요시장이 중심축이 돼 지역 관광산업을 이끌어 왔으나 밤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지난 4월부터 예양교 위에서 토요시장 야시장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야시장에는 장흥한우 소시지, 계절해물 파전, 과일 잡살떡, 숯불 막창구이, 불초밥, 한우빵 등 이색적인 요리들이 대거 선 보이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여기에 공원형 야시장과 장흥교 야간 조명 경관사업이 완성되면 주말(晝夜)을 아우르는 장흥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성 군수는 "탐진강은 장흥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로 관광지로의 확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토요야시장을 소통과 공감의 문화공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해남 금호호 농업용수, 진도가뽕지역에 공급

'농어촌공사-진도군' 협치 통해 용수공급 결실



7일 농어촌공사가 전남 해남군 금호호에서 가뭄 우심지역인 진도군 근내면까지 7.8km 구간에 설치한 임시관로에서 농업용수가 성공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윤석군 농어촌공사(왼쪽 세 번째) 전남지역본부장과 이동진 진도군수(네 번째)가 시험통수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해남 금호호 농업용수를 가뭄 우심지역인 이웃 진도군에 공급하기 위해 7일 시험 통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농업용

수 공급을 위해 '해남 금호호~진도 근내면'까지 7.8km 구간에 임시관로를 설치했다.

임시 관로는 진도대교를 따라 바다를 건너 근내면 지역에 하루 1만t의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이번 조치로 근내면 지역 농경지 227ha가 가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진도지역은 올해(6월말 기준) 들어 강수량이 158mm로 평년 대비 29%에 불과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왔다. 강수량 외에는 물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어서 애를 태워 왔다.

이번 임시관로 설치에 지난 5월 말 가뭄 현장을 방문한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정 시장은 이동진 진도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공사가 조기에 임시관로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험통수에 참석한 이동진 진도군수는 "가뭄피해 최소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숙원이 조기에 해결돼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석군 전남지역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항구적인 가뭄대책 사업으로 '금호호-근내호-둔전제'까지 연계연결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시 올해 복지 예산 3100억...전체 33%

3년새 52% 늘어

여수시는 올해 보건 복지 예산이 3100억원대로 전체 예산의 33%로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민선 5기인 2013년 보건 복지 예산에 비해서는 52%가 늘어난 수치다.

시에 따르면 민선 6기 3년째인 올해 복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면서 공공서비스 수혜자 확대, 상대적 복지 소외계층인 여성, 청년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집중했다.

그 결과 수급자는 11%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은 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여수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일선 행정조정인 읍·면·동을 복지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하고 올해 19개의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사각지대 제거에 주력했다. 내년에는 전체 27개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교육청, 재능기부자 '연찬회'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욱)에서는 지난 7일 지원청 내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지역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군 학부모·지역민 재능기부자 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는 무안군청이 지원하여 추진하는 '무안모아(母愛)' 사업의 하나로써 금년 7월 이후 학교당 14시간씩 총 26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의 역량강화 내용으로서, 학생 지도에 따른 강사카드와 단위 수업 계획 작성 및 효율적인 교수법 등에 대해 안내, 재능기부자들의 질의와 건의 사항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천욱 교육장은 "학부모·지역민의 재능기부를 통한 학교교육 참여는 열악한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교육공공체를 돈독히 하여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하고 앞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전국서 가장 빨리 개장

"부당요금 근절·안전사고 예방 최선 다 할 것"



남해안 최고의 하계 휴양지인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절해 해수

욕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이 하나 되어 전남 최초로 7일 문을 열었다.

개장식은 환경정화활동, 물놀이 안전장비 전시회 등 신진 행사

를 시작으로 부당 요금 근절 결의문 낭독,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과 피서객들을 위한 무사안녕기원 고사

등으로 진행됐다.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명구조 시범 훈련은 해상안전에 대한 의식제고와 긴급 구조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19안전센터와 완도해양구조대 합동시범 훈련으로 전국 제일의 안전한 해수욕장의 면모를 보여줬다.

명사십리해수욕장은 고운모래와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주변경관으로 유명하며, 공기의 비타민이라는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의 50배에 이를 정도로 풍부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최상의 힐링 해수욕장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전국 358개 해수욕장 평가에서 3대 우수해수욕장으로,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물놀이 안전명소로 전국 최고 점수로 선정된 바 있다.



희망의 길

무수한 발걸음이 땅 위에 길을 만듭니다.
땀과 열정이 희망을 만듭니다.
중서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최고 소매전문은행이 되도록
더불어 풍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도록
광주은행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